

아일랜드, 농업개황

김 용 렬*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IT분야에서 최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이다. 아일랜드는 압축성장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가규모와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아일랜드는 우리와 상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아일랜드는 농업용 토지 중 79%가 초지(grass)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농업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의 평균경지면적이 30ha가 넘어 규모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대규모의 농지를 유지하는 농업을 하고 있고, 주요한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수입국인 우리나라와는 입장이 다르다.

1. 아일랜드 경제 개황

아일랜드는 199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다. 아일랜드 통계청(CSO, Central Statistics Office)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GDP가 전년도에 비해 4.7% 증가한 1,600억 유로이다. 아일랜드 경제사회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GDP가 연간 5% 성장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imyl@krei.re.kr 02-3299-4362

아일랜드 인구는 2005년 현재 413만 명인데 이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0만 명에 이른다. 실업률은 4.2%로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낮은 편에 속해 경제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한데 아일랜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두 NUTS II 지역¹⁾(국경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BMW)과 남동지역(SE))간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2002년도 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73.3%(약 3백만 명)이 남동지역(SE)에 거주하고 있고 실업률도 BMW 지역이 SE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한다.

표 1 아일랜드 경제 개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DP(10억 유로)	104.4	117.1	130.5	139.1	148.6	160.3
1인당 GNP(유로)	23,457	25,459	27,142	29,247	30,726	32,938
노동력(만명)	174	179	184	188	192	201
고용률(노동력 기준)	95.7%	96.4%	95.8%	95.6%	95.6%	95.8%

자료: Ireland Rural Development National Strategy Plan 2007-2013, 2006
Central Statistics Office, 2006

2. 아일랜드 농업의 현주소

아일랜드 농업분야는 1차 농산물과 관련된 농업(primary agriculture)분야와 가공분야와 관련된 농식품(Agri-Food)분야로 나누고 있다. 농산물, 식품, 음료, 담배까지 포함하는 농식품 분야는 GDP의 8%를 차지하고, 농업(primary agriculture)의 경우는 GDP의 3%를 차지한다. 농식품 수출은 전체수출의 8.5%를 차지하는데 농산물 수입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농식품 분야가 순수외환소득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

1)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NUTS) II regions - Border, Midlands and West (BMW) and the Southern and Eastern (SE).

측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의 경우 2.7%, 농식품은 8.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에서는 농업이 5.7%, 농식품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농업 5.2%, 농식품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아일랜드 경제에서 농업과 농식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005년

구 분	농업	농식품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2.7%	8.6%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5.7%	8.5%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5.2%	8.5%

자료: Fact Sheet on Irish Agricul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2006

2.1. 아일랜드 농업 개황

아일랜드 통계청의 2003년도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 농가수는 135,300호이다. 농가 중 3.5%만이 농지면적 100 ha를 넘고 56%가 30 ha를 조금 넘기고 있다. 2003년 평균경지면적은 32.3ha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이별 농민 분포를 보게 되면 55세 이상이 42%에 달해 아일랜드도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부문 고용자수는 2006년 기준으로 109,100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 아일랜드 농업구조

구 분	농업	농식품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2.7%	8.6%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5.7%	8.5%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5.2%	8.5%

자료: Fact Sheet on Irish Agricul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2006

2.1.1. 토지이용(Land Usage)

아일랜드는 곡물생산보다는 초지이용에 더 적합한 기후조건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농업은 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아일랜드 국토 면적은 690만 ha이다. 이 중 62%(430만 ha)가 농업용으로 쓰이고 10%(710,000 ha)가 산림용으로 쓰이고 있다.

농업용 토지 중 79%가 초지(grass)이고 11%가 방목지(grazing), 7%가 곡물(cereals), 3%가 기타 작물(감자, 사탕무 등)이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총농지가 2%가량 감소하였다. 그중 건초생산(hay production)용 토지이용이 54% 감소(2000~04까지 22% 감소)하였고, 사일리지 생산용 토지이용이 11% 감소(2000~04년 동안 5% 감소), 목초지용 토지이용이 10% 감소(2000~04년 동안)하였는데 반해 곡물용(cereals) 토지이용은 오히려 15%(2000~04년 동안 11% 증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도에 들어서는 곡물용 토지이용이 10% 감소하였는데 주로 겨울용 귀리와 보리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2.1.2. 경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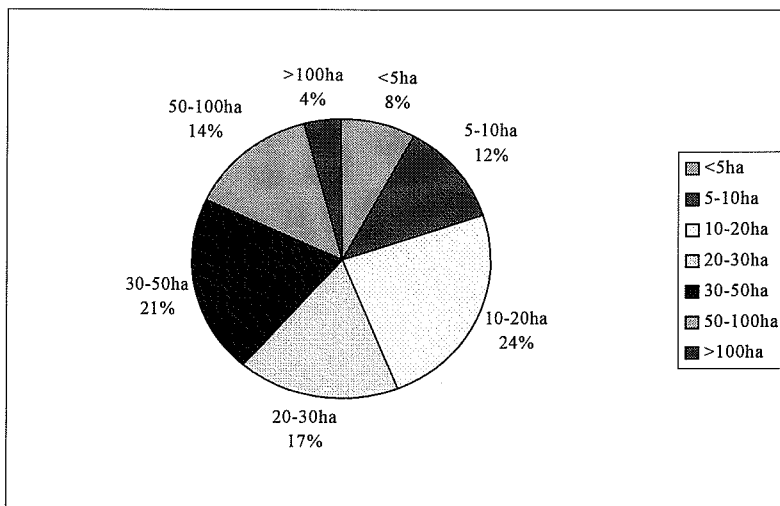
아일랜드는 우리와 비교할 때 농가들이 비교적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135,300 농가 중 42.1%인 57,200 농가가 파트타임 농가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아일랜드 농가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아일랜드의 평균경지면적은 EU 평균보다 조금 높다. 그러나 토지이용이 상대적으로 집약성이 낮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평균농장규모가 EU보다 작다. 아일랜드의 농장규모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서부와 북서부지역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남부와 동부지역이 규모가 비교적 크다. 소규모 농장의 특성은 생산성이 낮은 농장시스템, 농장주의 상대적 고령화, 이들 대부분이 미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일랜드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을 늘리는데 가장 큰 걸림들은 높은 가격과 낮은 토지유동성이라고 한다. 2005년 1분기에 평균농지가격은 ha당 16,230유로였다. 아일랜드 농민들은 농지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해 쓰는 농민이 전체농민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총임대면적은 2003년 86만 7,000ha이다. 40세 이상의 농민이 이들보다 젊은 농민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도록 독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임대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2000년 아일랜드 농업총조사(The 2000 Census of Agriculture)에서 특이한 것은 농가 중 28%만이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18%는 5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들 간의 토지유동성 제고, 토지병합 촉진, 토지의 조기 이전 촉진이 아일랜드 농업구조변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1 아일랜드 농지규모, 2003년



자료 : Central Statistics Office, 2003

우리나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아일랜드도 농가수가 매년 2% 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농가의 경우 20 ha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수가 1992년 8만 5,000호에서 2002년 5만 9,000호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규모가 큰 대농의 경우 약 7만 7,000호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2.1.3. 농가소득(Farm Income)

아일랜드의 2004년 평균농가총소득²⁾은 4만 3,704유로로 이는 아일랜드 국민 평균소득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농가와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 그리고 도시가구의 주당 소득의 경우, 농가는 주당 160 유로,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 주당 149 유로, 도시가구는 주당 195 유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평균농가총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함

2005년 Teagasc³⁾에 의해서 실시된 아일랜드농가조사(National Farm Survey, NFS)에 따르면 농외소득(off-farm income)을 제외한 평균농업소득(average farm income)은 2만 2,459유로이다. 아일랜드에서도 농가의 규모에 따라 소득수준의 차이가 많이 난다. 전업농(full-time farms)의 2004년 농업소득은 4만 483유로로 전년(2003년 2만 9,000유로)에 비해 39.6% 증가한 반면에 파트타임 농가의 2004년 농업소득은 1만 1,372유로로 전년(2003년 6,584유로)에 비해 72.7%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은 2005년 단일보조금정책(single payment scheme)에 따라 2004년도 연체금 청산에 정부가 지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평균적으로 직접지불금이 아일랜드 농가소득의 75%를 차지한다. 직접지불금은 낮은 가격에 대한 보상으로 EU로부터 농민들이 받는 직불금이다. 공동농업정책(CAP)의 직접지불금체계가 유럽농업모델의 큰 획을 그은 제도인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일반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과 동물복지 수준을 준수하면서 질 좋고 안전한 식품 생산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의 60%가 농외소득(off-farm income)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NFS에 따르면 농가 중 55%가 남자 혹은 배우자 또는 둘 다 농외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가 중 81%는 농외취업, 연금 혹은 사회복지혜택에 따른 농외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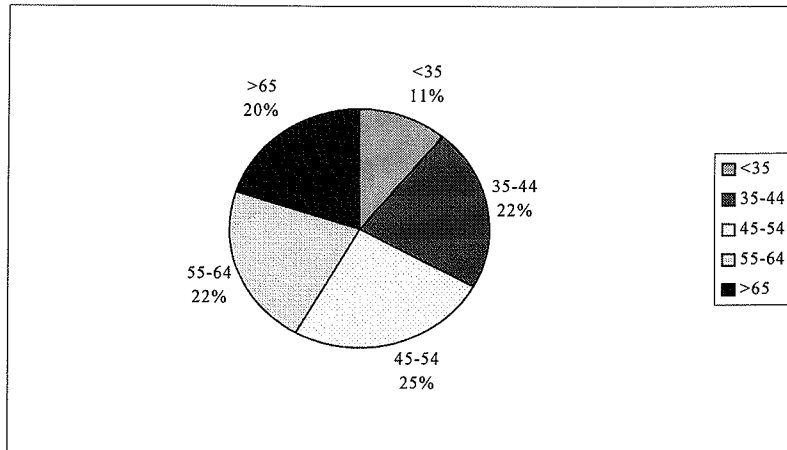
2.1.4. 농가연령구조

우리나라 농촌은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아일랜드의 농가연령구조를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농민의 11%가 35세 이하이고 55세 이상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 농업은 파트타임 농가(part-time farming)의 증가와 젊은이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일

3) 아일랜드 농업과 식품개발을 총괄하는 기관

반 경제의 흐름을 감안하여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농가수익성 증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림 2 아일랜드 농민의 연령 분포, 2003년



자료: Central Statistics Office, 2003

2.2. 아일랜드 농식품(Agri-Food) 분야

농식품 분야는 아일랜드 경제에서 중요한 분야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분야는 아일랜드 전역에 산재해 있는 13만 5,300 농가와 대략 800여개의 식품관련업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농산물, 식품, 음료, 담배를 포함하는 농식품(Agri-food)분야는 2005년 GDP 중 8.6%, 전체 고용 중 8.5%, 전체 수출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을 제외한 식품, 음료, 담배만으로 구성되는 식품(food)분야는 2005년 GDP 중 5.9%, 전체 고용 중 2.8%를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농식품 분야는 수출지향적인 반면에 수입은 많이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다른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가져옴에 따라 아일랜드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농식품산업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이나믹하고 다원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일랜드에는 700개 이상의 식품회사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다. 이 식품산업은 아일랜드 도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약 4만명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20만명에게 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육류 산업의 경우 국경지역(border area), 동중부(mid-east)와 남동부(southeast)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 낙농산업의 경우 남동부와 남서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많은 농산물과 농식품을 전세계 130여개 국가에 수출하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식품의 섬(The Food Island)'으로 불려지고 있다. 2005년도 농식품 수출은 75억 유로를 넘었다. 쇠고기, 낙농제품, 원료용이 이중 45%를 차지한다. EU 15개 국가가 아일랜드 농식품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영국이 아일랜드의 가장 큰 농산물 수입국인데 전체 수출의 46% 이상을 차지한다. 아일랜드는 농산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Doha Round와 같은 무역자유화에 대해 기대가 크다. 아일랜드는 이러한 무역자유화가 아일랜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 아일랜드 주요 농산물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GDP의 약 3% 수준으로 이것은 EU의 두 배 수준이다. 농작물과 원예작물이 전체 생산의 14%를 차지하고, 돼지가 6%, 양이 5%를 각각 차지한다. 아일랜드 농업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데 EU 국가들 중 쇠고기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세계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낙농제품의 경우 총생산 중 75%, 쇠고기는 80% 이상, 양고기의 경우는 60%를 수출한다.

생산자 가격기준으로 축산이 2004년도 전체생산에서 68.4%를 차지하여 농산물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5년 아일랜드 농업의 총부가가치는 약 21억 유로이다. 이것은 아일랜드 총생산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1997년 5.6%보다 낮아진 것이다. 총고용에 있어서는 6%를 차지한다.

표 4 농산물의 수출, 수입액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1992		1995		2000		2004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살아 있는 동물	89.5	163.9	74.1	222.7	227.2	419.8	223.2	228.8
육류	140.2	1,303.1	180.7	1,589.8	298.4	1,752.1	480.4	2,054.0
낙농제품	92.7	1,273.7	169.8	1,262.3	273.8	1,160.7	340.1	1,056.4
옥수수, 곡물	147.7	88.6	181.3	35.7	239.3	49.3	234.9	46.9
채소, 과일	212.4	71.2	244.8	110.4	346.7	149.4	420.6	188.0
설탕	57.0	39.3	66.4	51.9	69.5	46.9	94.9	78.9
사료	191.3	48.4	213.6	63.9	178.7	55.2	189.2	91.9
동물가죽	1.3	83.3	4.1	90.5	9.3	96.5	2.9	84.6
양털, 모직	20.4	14.7	33.5	30.8	30.8	10.5	2.6	7.9
동물및채소부산물	50.2	91.8	70.4	83.1	97.4	96.1	110.9	89.8
돼지기름, 지방	2.9	15.9	6.9	26.9	4.6	21.9	4.7	18.9
카세인(Casein)	6.5	131.7	12.6	174.7	14.2	187.8	6.9	198.5
합계	1,012.1	3,325.6	1,258.1	3,742.6	1,789.8	4,046.2	2,111.3	4,144.7

자료: Central Statistics Office (Trade Data), 해당연도

2.3.1. 육우

아일랜드 쇠고기 수출은 2002년 35만 8,000톤으로 10억 1,400만 유로를 수출하였으며, 2004년에는 41만톤으로 1,3억 유로를 수출하였다. 생우로는 2002년에 12만 5,000마리에 6,800만 유로, 2005년에는 18만 6,000마리에 8,400만 유로를 수출하였다.

아일랜드에는 2005년 현재 소(cattle)가 약 619만 마리가 있는데 이중 250만 마리는 번식우이다. 아일랜드는 쇠고기와 생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총 쇠고기 수출 중 5분의 1이 EU국가들에게 수출된다. 그 가운데 전통적인 시장인 영국에 5분의 1이 수출되고, 나머지 물량이 EU국가외의 나라들로 수출된다. 유럽국가 중 아일랜드에게 가장 큰 시장이 되는 나라들은 프랑스, 이태리, 폴란드, 스칸디나비아이고, 유럽 외 나라 중 이집트에 가장 많이 수출된다. 육우산업은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직접지불금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농외소득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05년 Teagasc⁵⁾의 농가조사에 따르면 육우

4) 농업의 고용, 사회지원, 연금 등

사육 농가 중 60%가 배우자 중 한사람이 농업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직접지불금이 농가소득의 1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육우생산

구 분	2004		2005	
	금액(백만유로)	마리	금액(백만유로)	마리
생우 수출	57.47	114,000	77.42	176,000
수출용 도축	1,247.67	1,723,000	1,263.96	1,606,000
기타 도축	50.36	90,000	43.77	79,000
수입	1.07	1,000	1.17	1,000

자료: Annual Review & Outlook For Agriculture & Food 2005/2006, Department of Agriculture & Food, 2006

2.3.2. 낙농

2005년 아일랜드 우유 총생산은 49억 4,700만 리터인데 이는 2004년 51억 5,000만 리터보다 4%가량 감소하였다. 이중 4억 7,600만 리터는 음료용 우유로 이용되었고, 31억 3,700만 리터는 버터생산, 12억 4,800만 리터는 치즈생산, 2억 1,500만 리터는 크림생산, 2억 6,900만 리터는 분유생산, 5억 6,900만 리터는 기타제품 생산에 이용되었다. 우유 수입량은 5억 5,000만 리터로 전년에 비해 45.9% 증가한 수치이다.

표 9 아일랜드 우유 생산과 이용

구 분	단위: 백만리터, %		
	2004	2005	변화량(%)
우유 생산량	5,150	4,947	-4.0%
우유 수입량	377	550	45.9%
음료용	479	476	-0.6%
버터	3,050	3,137	2.9%
치즈	1,151	1,248	8.4%
크림	215	215	0.0%
분유	242	269	11.3%
기타제품	612	569	-7.0%

자료: Annual Review & Outlook For Agriculture & Food 2005/2006, Department of Agriculture & Food, 2006

5) 아일랜드 농업·식품개발청

낙농가수는 과거 4만호에 이르던 것이 현재 약 2만 8,000호로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낙농가는 가족농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Teagasc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매년 1,000개의 낙농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낙농가의 평균 젖소 사육두수는 약 40마리 정도이고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110만 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다. 젖소의 연간 평균 우유 생산량은 5,500 리터이다. 낙농제품 수출액은 약 20억 유로에 이르고 수입은 4억 8,000만 유로이다. 2005년 Teagasc의 농가조사(National Farm Survey)에 따르면 낙농농가 중 50.2%가 배우자 중 한사람이 농업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접지불금이 농가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3. 양

아일랜드는 양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2002년 아일랜드는 4만 1,000 톤, 1억 6,000만 유로의 양고기를 수출하였는데 2005년에는 338만 5,000마리, 2억 300만 유로를 수출하였다. 프랑스가 아일랜드산 양의 주 수입국인데 2005년에 3만 2,300톤을 수입하였고, 스웨덴이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2만톤을 아일랜드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영국은 전년에 비해 24% 증가한 1만 4,900 톤을 수입하였다.

아일랜드 양산업은 낙농과 육우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산업이다. 약 3만 9,000호의 농가가 양을 기르고 있으며 총농업생산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양털은 부가가치가 낮아져서 많이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요즘 들어 양털이 주택의 절연체로 새롭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1975년에 양의 수가 150만 마리에던 것이 최근에는 425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많은 양이 증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0년에 양 가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은 1980년에 프랑스가 아일랜드로부터 양을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 EU의 CAP을 통해서 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표 6 양고기 산업

구 분	2004		2005	
	금액 (백만 유로)	마리	금액 (백만 유로)	마리
살아있는 양 수출	4.62	71,000	6.43	105,000
수출용 도축	209.07	3,229,000	197.29	3,280,000
기타 도축	28.40	336,000	23.91	335,000
수입	22.69	321,000	18.46	281,000
사육두수		4,557,000		4,257,000

자료: Annual Review & Outlook For Agriculture & Food 2005/2006, Department of Agriculture & Food, 2006

양 사육은 아일랜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부지역에서 많이들 사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Galway 카운티가 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다. Galway 카운티에 5,500 양사육 농가가 있는데 이들이 아일랜드 양의 14%에 해당하는 60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평균 양사육두수는 110마리이다. 양을 사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소도 함께 사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가 남긴 풀을 양이 먹기에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향후 양사육 두수와 수출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감소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양고기 소비는 정체상태로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양고기 소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요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는데 있다고 한다.

2.3.4. 양돈

아일랜드는 2002년 돼지를 12만 9,000톤, 2억 7,000만 유로를 수출하였는데 2005년에는 3억 2,400만 유로를 수출하여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였다. 영국이 아일랜드 돼지고기 주 수입국가인데 총 수출물량 중 67%를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EU가 18%를 수입하고 있다. 대략 돼지고기 생산량의 60%가 수출되고 있고, 생산량 중 1/6이 생돈상태로 북아일랜드로 수출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수입은 연간 3만 3,000톤인데, 이중 3분의 2가 영국과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다.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농가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72년 아일랜드가 EU에 가입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양돈농가들은 좀 더 전문화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약 1,500농가만이 양돈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양돈농가 수는 줄어서 현재 600농가 미만의 농가만이 양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양돈농가수가 급속히 줄어들어 따라 암돼지의 수도 크게 줄어 1974년에 9만 마리 이하로 까지 떨어졌다. 이 숫자는 1980년대 들어서 회복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16만 6,000 마리까지 다시 증가하게 되었고, 2005년 현재 17만 6,800 마리의 암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총 사육두수는 2004년 176만 마리에던 것이 2005년에는 4.5% 감소한 168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양돈농가는 대부분 4개 카운티(Cork, Cavan, Tipperary, Waterford)에 몰려 있다. 이렇게 양돈농가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농가당 사육하는 마리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82년에 평균 120마리의 종돈을 유지하던 것이 현재는 평균 355마리의 종돈을 유지함으로써 EU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돼지의 경우 야외에서 키울 수 없게 되어 있고 한사람 당 150마리 정도의 종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5. 곡물

곡물은 아일랜드 농지의 9%를 차지하고, 총농업생산의 10%에 해당하는 4억 1,300만 유로를 생산하고 있다. 곡물로 인해 가공식품분야의 4만 7,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빵과 밀가루 분야가 5,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곡물가공과 동물사료는 2,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설탕분야는 4,300개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곡물면적과 재배농가는 계속 줄어드는데 2005년 생산량은 193만 톤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감소한 것이다. 재배농가가 1975년 10만농가이던 것이 최근에는 1만 7,000농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재배면적은 50만ha에서 2005년 27만 5,700ha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4년도에 비해 10% 감소한 것이다.

표 8 아일랜드 곡물 생산량, 2005년

구 분	면적(1,000 ha)	1ha 당 생산량(톤)	생산량(톤)
총곡물 생산량	275.7	7	1,934,000
밀	94.7	8.4	798,000
겨울 밀	65.3	8.8	575,000
봄 밀	29.4	7.6	223,000
보리	164.5	6.2	1,025,000
겨울 보리	16.5	7.4	122,000
봄 보리	148	6.1	903,000
귀리	16.5	6.7	111,000
겨울 귀리	8.4	7.3	62,000
봄 귀리	8.1	6.1	49,000

자료: Annual Review & Outlook For Agriculture & Food 2005/2006, Department of Agriculture & Food, 2006

아일랜드에서는 봄보리가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그 다음으로는 겨울밀, 사탕수수, 감자, 귀리의 순이다. 아일랜드는 사실 사료용 곡물을 200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예측하기를 2010년쯤 이 분야에서 1,000명 정도의 전문화된 경작농가가 생겨나고, 이들의 평균경작지가 400ha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곡물생산과 농외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파트타임 농가가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6. 채소

아일랜드 채소산업의 규모는 약 41억 유로이고 생산면적은 4,500ha이다. 지난 5년 동안에 채소산업은 주요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채소농가들이 전문적으로 한 품목이나 두 품목만을 재배하게 되고 생산면적도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소농가들은 씨앗 살포기, 수확기, 세척기, 등급판별기 등을 갖추는 기계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저온저장고는 모든 채소농가가 현재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시설이 되었고, 수확된 채소는 시장에 나가기 전에 수확 후 바로 저온저장고에 들어간다고 한다. 채소류 중 당근, 양배추,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순무가 전체 채소생산량의 74%, 생산액의 63%를 차지한다.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채소가 아일랜드 채소시장의 약 7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채소 주요 생산지는 Dublin, Meath, Wexford, Cork이다. 채소생산농가중 600 농가가 전업농이고 1,400 농가가 파트타임 생산자이다. 한 생산자가 평균적으로 4 ha를 관리하고, ha 당 9,050 유로를 평균적으로 생산한다면 한 사람당 3만 7,000 유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9 채소재배 현황

종 류	재배농가	면적(ha)	생산액(백만 유로)
당 근	100	640	7.0
양배추	350	1,100	6.7
컬리플라워	115	640	5.0
브로컬리	115	470	4.0
순 무	141	560	3.5

자료: Teagasc 홈페이지, <http://www.teagasc.ie/agrifood/horticulture.htm>

2.3.7. 감자

감자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식품이다. 아일랜드인들은 감자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하는데 1845년 대기근으로 100만 명이 기아로 숨지고 200만 명이 아일랜드를 떠나는 슬픈 역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아일랜드의 감자 생산면적은 2005년 12만 2,000ha 인데 2004년 13만 3,000ha 보다 8% 감소하였다. 1ha 당 감자 생산량은 2005년 34.7톤으로 2004년 41.4톤에 16% 감소하였다. 따라서 총 감자 생산량은 2004년도 55만 2,000톤이었던 것이 2005년 42만 2,000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4%가 감소하였다.

감자 생산액은 대략 1억 500만 유로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자의 전체 시장가치는 약 1억 2,700만 유로에 달하고 이것은 원예, 채소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아일랜드 감자시장의 90%를 공급하고 영국산이 5%를 공급하고 있다.

아일랜드에는 832명의 감자생산자가 있다. 아일랜드 감자 생산면적의 70%를 160여명의 생산자가 경작하고 있다. 감자산업에서 생산자 수 조정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향후 5년 동안에 30ha 미만의 감자생산농가 550호가 이탈해야 경쟁력이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다.

감자생산은 여전히 아일랜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업적인 생산을 주로 하는 카운티들은 Meath, Dublin, Donegal, Cork, Louth, Wexford이고 이들이 상업적인 감자 생산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상업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감자생산면적은 약 13,000ha에 이른다.

2.3.8. 초지

아일랜드 농업은 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 토지의 5분의 4 이상이 초원이다. 따라서 아일랜드는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게 쉽게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낙농이나 육우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수출할 때 유리한 조건을 지니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초지에 관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많은 소득을 초지로부터 얻고 질 좋은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비료, 풀의 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특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초지농업(Grassland farming)이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최근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질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초지농업에서도 비료나 각종 오염물질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3.9. 버섯

아일랜드 버섯 산업의 발전은 아일랜드 식품산업 중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중의 하나라고 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아일랜드가 유럽

국가중 신선 버섯 생산의 주요 국가로까지 성장하였다. 생산액은 1억 1,400만 유로가 넘고, 많은 량의 버섯이 영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된다.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버섯은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다고 보면 된다. 1970년 초반에 처음으로 아일랜드에서 버섯재배가 시작되었고 1979년에 처음으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버섯 재배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버섯재배 과정 중 많은 것이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하지 않으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아일랜드에서도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버섯 채취와 같은 일에 종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버섯 재배농가들은 현재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10. 말

아일랜드에서 말 사육은 우수혈종 유지를 위한 종마(thoroughbred), 스포츠용, 경마산업용으로 나뉜다. 종마산업은 육종과 훈련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산업은 세계적으로 드문 산업인데 아일랜드의 종마산업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훈련용 말 4,250마리를 포함해서 종마용 말이 3만 2,000마리가 아일랜드에서 사육되고 있다. 20년간 1만마리 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성장을 가져온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첫째, 아일랜드 사람들의 종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둘째, 종마사육과 육종에 대한 아일랜드의 뿌리 깊은 전통, 셋째, 종마 사육과 육종에 적합한 토양과 기후로 인한 좋은 자연조건이라고 한다.

아일랜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어린종마들을 생산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어린종마 생산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다. 연간 아일랜드 말 판매액은 평균 약 9,000만 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 산업을 위한 연간 지출액은 1억 9,000만 유로가 넘는 것으로 나온다. 이 분야의 총 수출액이 연간 거의 1억 2,700만 유로이다.

경마경기는 아일랜드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람객들이 꾸준히 늘어서 연간 평균 135만 명이 관람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들도 아일랜드

경마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매년 5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한다. 우승 상금이 3,000만 유로를 넘고, 경기 배팅액이 연간 1억 3,800만 유로가 넘는다고 한다.

스포츠 말들은 쇼점핑, 이벤트, 기찻길 승마(trail riding)과 같은 쇼를 위해 사육된다. 스포츠 말 산업은 아일랜드 경제에 1억 2,700만 유로 이상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레저 부문이 날로 성장하여 기수의 날(Equestrian holidays)이 관광산업에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 이것을 보기 위해 10만명이 찾아오고 연간 6,400만 유로를 쓴다고 한다.

고용효과의 경우, 종마산업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농촌지역의 고용 창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직접적인 고용은 6,500개, 간접고용은 5,000개가량의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종마분야는 아일랜드 경마배팅산업을 받쳐주고 있고, 커지고 있는 관광산업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스포츠 말 산업은 1만 2,000명의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파트타임과 계절고용을 고려한다면 약 3만 2,000명 정도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 환경농업

최근에 환경적인 고려사항들이 EU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농식품부는 농촌환경보호정책(REPS, Rural Environment Protection Scheme), 농장쓰레기관리정책(Farm Waste Management Scheme), 낙농위생관련정책(Dairy Hygiene Scheme), 조방농업(Extensification)⁶⁾과 같은 많은 환경관련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다. EU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 농업인들은 보조금 수혜의 대가로 특정한 환경규정들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이것을 상호교차이행준수(Cross-Compliance)⁷⁾라고 한다.

6) EU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으로써 농사를 지음에 있어 토지를 집약적이지 않게 즉 조방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농업정책. 생산량 증대보다는 생산비 절감에 초점을 둠.

7) 생산에 대한 직접지불의 decoupling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는 단일보조금제도하에서 농업에 대한 EU 지원, 식품안전과 동물건강 및 복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법안들 간의 상호연계를 하는 것이다. 단일보조

1994년 EU의 CAP 개혁이 있는 후 농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각 EU 회원국들은 생산을 줄이고 질 향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환경에 대해 농업생산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계획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배려, 교육,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정책인 농촌환경보호정책(Rural Environment Protection Scheme, REPS)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정책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조금 다른 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영국과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개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시행하는데 반해 아일랜드는 전역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 정책이 농업소득도 향상시키고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실제로 주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현재 농가의 37%와 전체 농지의 40%인 170만 ha가 REPS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수질향상,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자연경관보호, 전통문화 보호에 두고 있다. REPS는 현재 농지 중 33%에 해당하는 지역에 경관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굉장한 성과인데 단지 5년 만에 4만 8,000 농가가 참여하였다는데서 증명이 된다. 산울타리, 들담, 들판경계, 산림지대, 늪지, 기타 서식지들을 제거하는 것을 REPS에서는 금지시켰다. 또한 벽돌 가마, 전통수제철문, 돌교각, 우리, 전통석재건물과 같은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지역 경관물도 또한 제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아일랜드 유기농 재배면적은 2002이후 18% 가량 성장하여 2005년에 3만 5,266ha에 이르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1,090명의 유기농 운영자들이 있는데 이중 978명은 유기농산물 생산자이고 나머지는 유기농산물을 가공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가공업자들이다. 유럽의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가 60억 유로에 이르는데 이것은 유럽

금제도하에서 농업인들은 환경, 동물과 식물건강, 동물복지에 대한 EU 규칙에 근거한 다양한 법적 경영 조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 SMRs)들을 준수하도록 요구받게 되고 농업과 환경에 적합한 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GAEC)을 갖춘 토지를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것이 Cross-Compliance이다.

전체식품시장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두 배로 성장하였다.

아일랜드의 유기농 분야는 REPS와 유기농발전보조금정책(Scheme of Grant Aid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c Sector)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유기농발전보조금정책은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하에서 유기농 경영자에게 등급판별기, 포장기, 저장고 등과 같은 생산과 관련된 시설과 유통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Central Statistics Office, <http://www.cso.i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2006, Annual Review & Outlook For
Agriculture & Food 2005/2006.

-----, 2006, Ireland Rural Development National Strategy Plan 2007-2013(Draft).

-----, 2006, Fact Sheet on Irish Agricul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홈페이지 <http://www.agriculture.gov.ie>

Rural Economic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http://www.tnet.teagasc.ie/terc/>

Teagasc 홈페이지 <http://www.teagasc.ie/>